

# 대법원 2018도7441

## 청암대 총장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관실(02-3480-1451)

대법원(주심 대법관 김재형)은 2018. 7. 26. 청암대(순천시 소재) 강명운 총장에 대한 「학교회계자금 부당 운용 및 집행 등」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<sup>1)</sup> 위반(배임) 등 사건에서 **검사와 피고인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**하여, 피고인에 대하여 **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** 하였음(대법원 2018. 7. 26. 선고 2018도7441 판결)

### 1. 사안의 내용

#### ▣ 피고인의 지위

- 강명운 : 청암대학교(순천시 소재) 총장(학교법인 청암학원 이사과 이사장 등 역임)

#### ▣ 공소사실의 요지

- 피고인은, 「청암대 학교법인 법인회계 또는 교비회계 부당 운용, 집행 등과 관련」 ① 특정경제범죄법위반(배임), ② 업무상배임으로, 「여성교수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및 수사과정 등에서의 피고인의 각종 대응과 관련」 ③ 강제추행, ④ 무고, ⑤ 명예훼손, ⑥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각 기소되었음

1) 이하 ‘특정경제범죄법’이라고 함

죄명	범죄사실	1심 판단	원심 판단	상고인
<b>I. 청암대 법인회계 또는 교비회계 자금 부당 운용, 집행 등 관련</b>				
업무상 배임	<p>[업무추진비 취득]</p> <p>2005. 7. ~ 2008. 4.  <u>피고인은 비상근 이사로, 실비 외에는 보수 등을 지급 받을 수 없음</u>          피고인은, 2004년 말부터, 청암대 학생들이 해외 인턴쉽 사업 통해 국비 등으로 일본에 방문하자, <u>학생들의 현지 취업을 돕는다는 명목으로,</u>          매월 청암대 교비회계에서 한화 300만 원씩, 34개월간, <u>1억 2,000만 원</u> 지급받음</p>	유죄	무죄	검사
특정경제 범죄법 위반 (배임)	<p>[오사카 연수원 임차료 취득]</p> <p>2007. 1. ~ 2012. 9.          일본 오사카에 별도 연수원을 설립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, 학생들 숙소로 부적합한 <u>피고인의 일본 건물</u>을 청암학원에 '오사카 연수원'으로 임대하여 임대료 명목으로 청암학원 법인계좌에서 'HO 코퍼레이션(피고인 처남택이 대표)'<sup>2)</sup> 앞으로 <u>343,906,020원</u>, 'K 코퍼레이션(피고인의 처 칸노 ○○○가 대표)' 앞으로 <u>176,454,205원</u>, <u>합계 520,360,225원</u> 지급</p>			
업무상 배임	<p>[오사카연수원 관리위탁업체 'K 코퍼레이션' 위탁비취득]</p> <p>2007. 5. ~ 2011. 12.          일본 오사카 연수원 설립을 기화로, 위 연수원을 위탁 관리(시설, 전기, 가스, 수도, 통신 등)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, 피고인의 처 칸노 ○○○ 명의로 위탁관업체 'K 코퍼레이션'을 설립하여 청암학원 법인계좌에서 칸노 ○○○ 계좌로 <u>합계 151,890,719원</u> 송금</p>			
특정경제 범죄법 위반 (배임)	<p>[국제학생육성기구 업무위탁비 취득]</p> <p>2008. 9. ~ 2012. 8. <u>일본 내 학생 취업 및 산학교류 등</u> 명목으로 컨설팅회사 국제학생육성기구(주)를 설립하여 이사회 개최 없이 위탁관리계약 체결하고, 청암학원 법인계좌에서 <u>646,979,193원</u> 지급</p>	유죄	유죄	피고인
업무상 배임	<p>[가사도우미 급여]</p> <p>2011. 5. ~ 2011. 6. 강○○ 주거지 가사도우미 이○○의 급여 각 200만 원씩 <u>합계 400만 원</u>을 청암대 교비회계자금에서 지급</p>	유죄	유죄	피고인

2) 「HO 코퍼레이션」과 「K 코퍼레이션」은 모두 법인명(실명)의 약자임

II. 여성교수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및 수사과정 등에서의 피고인의 각종 대응과 관련				
강제추행	<b>1. 피해자 A</b> ① 2013. 9. <u>식당</u> 에서 스커트 속으로 허벅지 1회 만져 강제추행 ② 2013. 10. <u>승용차 뒷좌석</u> 에서 가슴 1회 만져 강제추행 ③ 2013. 11. <u>중국 호텔 객실</u> 에서 1회 껴안아 강제추행 <b>2. 피해자 B</b> ① 2013. 8. <u>노래방 특실</u> 에서 다리를 비비고,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② 2013. 9. <u>콘서트장</u> 에서 엉덩이 만져 강제추행	무죄	무죄	검사
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	2014. 8. 순천투데이 기자와 인터뷰도중, ' <u>A와 연인사이이고, 강남 특급호텔도 같이 갔다</u> '고 허위사실 말해 보도되게 하여 명예훼손			
명예훼손	202014. 11. 청암대 총장실에서 부총장 이○○에게 ' <u>서울 강남 호텔에서 A 교수와 잠을 잤다</u> '고 허위사실 말해 명예훼손			
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	2015. 1. 순천지청에서 ' <u>A가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허위고소하였다</u> '라고 허위사실 고소하여 A를 무고			

■ 원심의 판단(1심 : 징역 3년, 법정구속 → 원심 : 징역 1년 6월)

- 「청암대 학교법인 법인회계 또는 교비회계 자금 부당 운용, 집행 등과 관련」 ① 특정경제범죄법위반(배임), ② 업무상배임 부분 → 일부유죄 + 일부무죄

- 무죄부분 : 업무추진비 지출과 청암대 오사카 연수원의 유지 관리비 지출 등으로 인한 특경법위반(배임)과 업무상배임 공소사실에 관해서 1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음. 그러나, 당시 상황에서 각종 비용과 경비 지급의 현실적인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었다는 점 등을 전적으로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는 피고인의 일부 주장에는 설득력이 있음 →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보기 어렵고, 무죄로 판단함이 타당함 → 이 부분에 관한 1심의 결론(유죄)을 유지할 수 없음

- 유죄부분 : ① 국제학생육성기구 업무위탁비 취득으로 인한 특경법위반 (배임) 부분 관련, 피고인이 업무위탁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 위하여 청암대로 하여금 명목상·형식상으로 국제학생육성기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
- ② 가사도우미 비용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부분 관련, 피고인이 위 가사도우미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다는 것에 관한 배임의 고의와 위법성 인식이 인정됨
- 「여성 교수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및 수사과정 등에서의 피고인의 각종 대응과 관련」 ③ 강제추행, ④ 무고, ⑤ 명예훼손, ⑥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 → 전부무죄
- ① 강제추행 관련 :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합리성, 일관성 및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되는 등 그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움(특히 A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내용이 수차 반복되었고, A가 주장하는 일부 강제추행 사실은 기소도 이루어지지 않았음)
- ② 무고, 명예훼손 등 관련 : 피고인이 허위사실로 이들을 고소하였거나,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에 대한 검사의 증거가 부족함
- → 위 공소사실들에 대한 검사의 증거는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못함

## 2. 대법원의 판단

### 가. 판결 결과

#### ■ 상고기각

-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

### 나. 판단 근거

- 원심의 위 판결이유와 결론을 수긍할 수 있고, 관련 법리의 적용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

### 3. 판결의 의의

- 피고인이 저지른 사학(私學) 관련 비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(배임)과 업무상배임죄의 책임 인정과 범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음
- 여성교수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및 수사과정 등에서의 피고인의 각종 대응과 관련한 강제추행, 명예훼손,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관해서는, 검사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음
- 결국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안임